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2. Vol. 21, No. 1, 41-58
http://dx.doi.org/10.5934/KJHE.2011.21.1.41

생애주기에 따른 실직경험 및 구직활동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Cohort Study on the Experiences of Job Loss and Job Seeking in Korea

양성은*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Yang, Sungeun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job loss and job seeking experiences between middle-aged men and their younger cohort. Participants included 11 middle-aged unemployed men and nine younger unemployed men. The study adopted a phenomenological approac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and the theme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interview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wo cohorts experienced the macroeconomic crises,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differently. Their experiences affected their attribution of the unemployment and job seeking process. They expressed ambivalence toward their family while dealing with social isolation from extrafamilial support. Most of the participants criticized government employment support policies and services.

Keywords: job loss, job seeking, cohort, qualitative research

Ⅰ. 여는말

실직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활발히 이루진 바 있다. 약 10년이 지나 다시 야기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는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불안을 유발했고, 실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학문적 재조명을 촉구하고 있다. 통계청(2011)은 “2011년 10월 고용동향”에서 공식실업률 2.9%와 고용률 59.9%를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나 구직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이와 다르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체 평균실업률보다 높으며, 서비스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고용도 위협받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루어져야할 실직자 가족에 대한 연구는 2008년 금융위기의 파장만을 보는 단편적 시각을 넘어서야한다. 현재 실직자들은 연령층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를 다르게 경험했기 때문에 일종의 코호트효과(cohort effect, 동시대출생집단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1997년 외환위기를 생애주기의 어떤 단계에서 경험했는가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에 다르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규정하는 청년층(15세 이상-29세 이하)은 민감한 청소년기를 IMF체제에서 보내면서 아버지세대의 실직을 체험했다. 한편, 현재 중장년층은 외환위기 구조조정의 직접적 타깃이었던 시기를 견딘 후 다시 실직의 위험에 처한 세대이다. 연령층에 따라 10년 전 고용위기를 달리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32-C00001)
* Corresponding author: Yang, Sungeun
Tel.: 032-860-8117, Fax: 032-865-5228
Email: syang@inha.ac.kr

기가 야기한 대량실업과 취업대란을 다르게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코호트효과를 연구의 핵심개념(sensitizing concept)로 고려하여 생애주기단계가 각기 다른 실직자들을 비교한 가족학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하다. 물론 경제학이나 노동분야에서 금융위기 이후 실업에 관한 연구가 급증했지만, 이는 실직자들의 사전경험이나 주관적 관점을 간과하고 거시경제에 초점을 둔 것들이다. 한편, 구직자 연령을 고려하여 청년인턴제, 잡쉐어링(일자리나누기), 고령자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등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실직자들의 요구에 대한 경험적 자료(empirical data)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전문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로서, 청년인턴제는 정부 주요 부처에는 지원자가 몰리나 일부 지자체에는 지원자가 미달되는 등 심한 편차를 보인다(“행정인턴 2만5000명 무슨 일하고 어떤 대우 받나”, 2009). 이러한 시행착오는 실직자들이 자신이 처한 생애주기단계에 따라 실직에 대한 태도나 구직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코호트효과를 고려하여 생애주기단계가 다른 실직자들의 실직경험 및 구직활동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한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어떻게 자신의 실직을 개념화하고, 어떻게 구직활동을 진행하며, 가족내체계 및 가족외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대처하는지 비교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실직자들을 피상적 통계치로만 간주하는 기존의 양적연구들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실존적 경험을 경청할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심층적 질적분석을 통해 각 연령집단이 규정하는 실직 및 구직의 의미를 도출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한국의 전통적 직업관을 탐색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내 역할규범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실직자의 생애주기단계에 부합되는 차별적 실업정책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가족발달단계에 적합한 실직자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실직 및 구직에 대한 선행연구는 몇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부출연 연구기관(예: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나 민간경제연구소(예: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들이 있다. 이들 연구보고서들은 금융위기의 여파를 고려하여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거나(삼성경제연구소, 2009), 노동시장 평가를 기반으로 고용정책을 고찰하거나(허재준, 2009; 허재준 외, 2009), 또는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체감실업률, 실직확률, 구직확률에 대한 변동을 산출하는 것(김혜원, 2008; 정성미, 2009)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보고서들은 금융 불안이 실물위기로 전이되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나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공통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보고서들은 거시적 현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통계적 수치나 정책 중심의 기술적(記述的) 정보만으로는 현재 실직자들이 매일의 일상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제공하지 못한다.

실직 및 구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거시적으로 실업동향을 고찰(Shin, 2006)하거나 고령자 고용측면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한 논문(Shin, 2008) 등이 전형적인 경제학 논문이라면, 사회복지학 분야는 전통적으로 실직자들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심(Lee, 2003, 2004)을 가지면서 실업극복운동을 조명(Park, 2008)하였다.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학 분야에서도 실직 및 구직에 관한 논문들이 등장하였는데,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요인(Lim & Yang, 2006)이나 취업성과(Cho *et al*., 2008)를 분석한 논문들이 대표적이다. 심리학 분야에서도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Tak *et al*., 2006)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나 이는 실직자 개인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관계 측면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실직 및 구직에 관한 가족학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활발히 이루어졌다. 실직으로 인해 가장(家長)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들(Kim, 2000; Sung, 1999)을 필두로 하여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Ryu, 2005), 아내 구타(Yi, 2000), 이혼 가능성(조성희, 1999) 등을 조명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부모자녀관계 측면에서는 아버지의 실직이 청소년의 자아개념(Chung, 1999), 우울감(Joung, 1999), 직업관(Ryu, 1999) 등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는 실직의 폐해가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경제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중장년층 실직가장들은 신체적 질병을 호소하거나 정신병리의 가능성을 보이며(Tak *et al*.,

2006), 자아존중감의 손상과 자괴감으로 음주나 흡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Lee, 2004). 이러한 실직가장의 사회심리적 특성은 가족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전체에 전이되며(Vosler & Page-Adams, 1996), 가족 내의 갈등, 폭력, 해체까지 유발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실직경험이나 구직활동이 실직자 개인의 경험인 동시에 가족역동을 간과할 수 없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한편, 청년층 실직자들은 구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우울, 불안, 무망감(hopelessness), 자존감의 손상, 신체화 증상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Kim, 2005; Song, 2004).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고려했을 때, 청년실직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독립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면서 부모-자녀간의 역할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게 하며, 성인기의 발달과업인 결혼과 자녀출산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준다(Chang *et al.*, 2004; Kim, 2009; Yu, 2004).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실직 및 구직에 대해 코호트효과를 고려한 가족학적 연구가 아직까지 부재하다는 점이다. IMF체제에서 부모의 실직을 목격한 청소년들은 성장해 자신의 청년실업을 경험하고, IMF체제에서 구조조정을 견뎌낸 중장년층이 다시 실직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주목할 때 실직자에 대한 연구는 코호트효과를 고려하여, 실직자의 생애주기 및 가족발달단계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각 연령층의 실직자들이 10년 전 외환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현재의 실직상태를 개념화하고, 어떻게 구직에 대한 활동을 구체화하며, 가족이 처한 발달단계에서 가족내체계 및 가족외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대처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인식론적 근거

코호트효과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생애주기단계의 실직자들을 연구한 국내 가족학 선행논문은 부재하다. 이처럼 선행연구가 부족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적 모델이 미처 구축되지 못한 경우, 그 특정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시도(“let their voices be heard”)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석주의적(interpretive)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연구방법이 유용하다. 질적연구방법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또는 “가족원의 실직”처럼 익숙하지만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주제를 탐색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Stern, 1980).

질적연구방법의 근간에 있는 해석주의적 인식론은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제도현상이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의 맥락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신경림 외에서 재인용, 2004, p. 66)”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즉, 자연과학을 지배하는 실증주의적(positivistic) 인식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협소하게 조작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test)하는 대신 관심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understanding)하는데 목표를 두고, 생애주기의 일상적 사건이나 어려움에 처한 순간을 기술한다(Denzin & Lincoln, 2000). 질적연구는 “살아 있는 경험(lived experiences)”을 얻기 위해 실제로 이를 체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Van Manen, 1990, p. 35).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이 해석이 현재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직자에 대한 연구들이 거시경제적 관점에 편향된 점을 비판하면서, 이들 가족의 미시적 경험을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를 통해 각 연령층의 실직자들이 자신의 실직경험 및 구직활동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도출하여 이면에 감추어진 정서, 신념, 동기, 태도, 가치관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질적연구는 특정 현상이 발생한 맥락을 중요시한다(Schwandt, 1997). 사람들이 특정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이 발생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이다. 실직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횡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이들의 선행경험(1997년 외환위기)이 어떻게 현재(2008년 금융위기)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종적 및 횡적 맥락을 고려해야하는 다차원분석에서는 직선적 인과모델(linear causal model)을 지향하는 양적연구법보다는 순환적 인과모델(circular causal model)을 지향하는 질적연구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생애주기단계에서 현재 청년기 및

중장년기에 속한 남성 실직자들이다. 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를 생애주기의 어떤 단계에서 경험했는가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가 야기한 고용불안에 다르게 대처하리라는 가정 하에 코호트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현재 중장년층은 평생직장 개념을 당연시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경험한 세대이고, 청년층은 아버지세대의 고용위기를 청소년기에 체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실직자 준거를 금융위기 영향으로 실직한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으로 규정했다. 또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직자 준거를 금융위기 영향으로 대학 졸업 후 구직하지 못한 29세 이하의 남성으로 규정했다. 특히 실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인구까지 포함하는 유사실업 개념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각 연령층 실직자를 정의하는 준거에 따라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부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잡넷(www.jobnet.go.kr), 알바워크넷(http://alba.work.go.kr) 등의 웹사이트에 연구참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 또한, 서울 및 경기지역의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실무자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질적연구의 참여자 규모에 대해 Creswell(2007)은 현상학적 심층면접을 할 경우 10명 이하의 참여자가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Morse(2000) 역시 "현상학적 연구일 경우 6-10명의 연구참여자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20명(중장년층 실직자 11명, 청년층 실직자 9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장년층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49.9세로서 학력은 대학 졸업 1명, 대학중퇴 1명, 고등학교 졸업 7명, 중학교 졸업 2명이었다. 모두 기혼자이며, 1명(중장년층 8)을 제외하고 모두 자녀가 있었다. 이들은 중소기업체의 생산기술직 및 사무직에 근무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면접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생계급여를 받는 연구참여자가 2명,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는 연구참여자가 3명이었고, 그 외는 아내의 수입이나 저축금에 의존하였다. 주거 형태를 보면 자가 소유자 6명, 전세 3명, 월세 2명이었다. 청년층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7.2세로, 모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면접 당시 졸업 후 평균 16개월이 지난 상태였으며, 지속적으로 기업체에 구직을 시도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부모님께 의존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버는 수준이었다. 거주 형태를 보면 5명은 자취를 하고, 4명은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는 코호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장년층 및 청년층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개별심층면접(phenomenological individual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현상학적 접근은 실증적 만능주의에 반기를 든 해석주의적 질적연구의 한 범주로 볼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는 특정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면서, 그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보편적 본질을 포착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기술은 사람들이 경험한 "어떤 것"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로 구성된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실직이라는 사건을 통해 "무엇을" 경험했고, 구직과정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접근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직과 같은 스트레스에 처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관적 경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개방적 질문으로 구성된 현상학적 개별심층면접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개별심층면접의 내용은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경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실직에 놓인 과정, 실직이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친인척, 친구, 동료 등)에 미친 영향,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대한 개념, 구직을 위한 현재까지의 시도와 앞으로의 계획, 고용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코호트가 처한 독특한 상황에 따라 추가질문이 부여됐다.

개별심층면접은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사무실 또는 연구참여자의 희망 장소에서 2010년 4월에 진행되었다. 개별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이었으며, 각각의 면접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전사되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되었다.

4. 자료분석

중장년층과 청년층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심층

면접 자료는 중심주제 분석법(theme analysis)에 의해 분석되었다. 중심주제분석법은 특정 현상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태도, 개념, 가치관 등을 도출하여 중심주제를 발견하고 조직화하는 질적분석방법이다(Van Manen, 1990).

분석은 집단내 분석과 집단간 분석의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집단내 분석을 위해 연구참여자 각각의 사례에서 의미단위를 찾아내는 사례내 분석(within-case analysis)을 먼저 실시하고, 각 코호트에 속한 연구참여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사례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코호트 고유의 실직경험과 구직활동이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적 위기에 대한 경험, 실직의 원인에 대한 귀인, 구직의 목표와 딜레마, 구직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관계들, 그리고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집단간 분석을 위해 각 코호트에서 산출된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가 현재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실직자들에게 코호트 별로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떤 공통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도출하였다.

5. 자료수집 및 분석의 타당성 검증

양적연구가 신뢰도(reliability)나 타당도(validity)를 강조하는 반면 질적연구를 평가하는 준거로는 신뢰성(dependability), 진실성(credibility), 적용가능성(transfer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 등이 있다(Guba & Lincoln, 1985). 이러한 개념들은 질적자료수집 방법이 연구문제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서 수집된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 분석과정이 질적연구의 패러다임에 맞게 엄격히 이루어졌는지, 도출된 결과가 연구참여자들의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하는 현상에 대한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지 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질적연구자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 분석을 거쳐 연구주제의 본질에 도달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질적연구를 평가하는 준거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검증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수집 단계부터 수시로 동료전문가로부터 자문(peer debriefing)을 받아 연구자의 오류가능성을 감소시켰다. 둘째, 고용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취업박람회 및 직업훈련 수업에 참석하여, 연구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셋째, 잠정적 분석모델이 도출된 후 이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예외사례에 주목해 결과를 재점검하는 반증사례분석(analysis of disconfirming observation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실직자의 면접 자료를 각기 분석한 후, 두 코호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Figure 1] Job loss and job seeking experiences among middle-aged and younger unemployed men

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실직경험 및 구직활동에 대한 통합적 중심주제를 도출하였다. [Figure 1]은 중장년층 및 청년층 코호트의 실직 및 구직 경험을 도식화한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거시경제적 위기(macroeconomic crises)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실직을 귀인(attribution for unemployment)한다. 거시경제적 위기를 직접 체험한 중장년층은 자신의 실직을 외적귀인하는 경향이 높고, 거시경제적 위기를 간접 체험한 청년층은 내적귀인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실직의 원인을 어떻게 귀인하는가에 따라 구직과정(job seeking process)도 차별화 된다. 각 코호트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목표로 구직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적 딜레마에 부딪친다. 결국, 취업이 지연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정부의 고용지원정책(government employment support policies)이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비판적 태도(criticism of the government policies)를 보였다.

1. 중장년층 코호트의 경험

1) 거시경제적 위기에 대한 경험

연구에 참여한 중장년층 실직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중장년층 연구참여자들이 겪은 일반적인 실직 경로를 살펴보면, 이들은 외환위기 이전에 기업체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운영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다니던 기업체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던 자영업체의 부도를 겪는다. 이후 영세중소기업체를 전전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반복한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다시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실패하여 실직을 하게 된다. 중장년층 실직자들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이 안 되는 진행과정"으로 표현하고, 연속된 거시경제적 위기가 실직 및 구직에 미치는 직접적 파장을 지적했다.

> 30대까지 의료 제조업을 했죠. 그러다 IMF라는 외환위기가 타격을 줘서 부도가 났죠. 재기했다가 또 실패를 해서 완전히 접고, 생산직에 종사하게 된 거죠. 그 후에 또 고통을 겪었던 것은 2008년 6월 이후부터였어요. 미국 GM[General Motors]이 파산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 한국의 GM대우까지 영향을 미치고, 제가 종사했던 동네의 GM대우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 일이 없어졌죠. 일 자체가 없어지니까 저희 같은 비정규직은 권고사직을 당한 거죠. 그 이후에 새벽에 하는 일용직도 나가보고, 건설현장도 가고, 금속 도금하는 3D업종으로도 다녔죠.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현장 근로자들이 오래 버티질 못해요. (중장년층 1)

> IMF 때문에 정리해고 되듯이 퇴직한거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어요. 자영업도 하고, 공장에도 갔죠. 그러다 작년[2009년]에 내가 다니던 회사가 IMF 때보다 더 어렵게 됐어요. 반 정도는 정리됐는데,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만뒀죠.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데, 나이가 높으니 취업이 잘 안되잖아요. (중장년층 7)

2) 실직의 원인

중장년층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실직이 거시경제적 위기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개인적 수준에서 대처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실직의 주요 원인이라는 외적귀인이 나타났다.

> 나 같은 소매업자들은 나 하나만 자금이 풍부하다고해서 견딜 수 없어요. 세계의 2차 산업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사업체를 부도 낸 것이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생각해요. (중장년층 1)

중장년층 연구참여자들은 외체계의 위기로 실직이 된 이후에도 연령차별 때문에 재구직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다. 연령차별을 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실직의 원인과 구직의 어려움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있다고 보는 외적귀인은 사업주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며, 사회 불만으

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 제 나이가 올해 46살이에요. 이력서를 한 50군데 냈는데, 연락 온데가 없어요. 회사마다 젊은 사람만 택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나이 먹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할 거라고는 노동일 밖에 없어요. 자기 회사 편하기 위해 젊은 사람만 쓰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도 생각해서 좀 따뜻이 안아주면서 써달라고 하고 싶어요... 세상이 저에게 기회를 안줍니다. 제 몸은 뭐든지 하고 싶고 할 자신이 있는데, 세상이 기회를 안 줘요. (중장년층 4)

> 내가 55살인데, 우리 나이에는 직장 잡을 때가 없어요. 작은 회사인데도 45살 넘으면 받질 않아요. 인력회사 가도 젊은 애들을 먼저 보내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꼼꼼하고 책임감도 있은데, 인정을 안 해줘요. 사업주 자신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뽑고, 남의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지. 우리나라 기업주들이 사회 환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업주들이 일하는 사람을 상놈으로 취급하는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는 소리를 하지요. (중장년층 5)

3) 구직과정

①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화

중장년층 연구참여자들에게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을 묻자 이들은 즉각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거라도 할 수 있다"는 일치된 반응을 나타냈다. 실직이 장기화되고 구직의 가능성이 감소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표현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즉각적인 반응 이면에는 복잡한 구직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 아무 거라도 시켜주는 일이 있으면 최고죠.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일하고 싶어요. 내 몸이 부서져도 일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한 달 내내 잠 안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나와요. (중장년층 2)

② 구직의 딜레마

중장년층 연구참여자들이 "아무 일이나 하겠다"는 소망을 표현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도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를 냉정히 평가한다. 현재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의 고강도 노동,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취업을 주저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자신이 취업 가능한 직장에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기대수준과 현실적 취업 가능성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중장년층 6)에서 자발적 취업 지연이 장기화 되는 것이다.

> 버스기사를 하고 싶은데, 이건 경력이 있어야돼요. 경력을 쌓으려면 마을버스로 시작해야하는데, 이건 초봉이 너무 적어서 고민 중이예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가족을 건사할 만큼 경제적인 부분이 따라줘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쉽게 못 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년층 11)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인 경우, 수급대상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고 취업을 중단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 어디든지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가고 싶죠. 나이가 있으니까 조건만 맞으면 어디든 갈 수 있죠. 하지만 직장을 나가서 어느 정도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단 말이예요. 수급자인 상태가 나으니까 한두 달 다니다 안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내가 딱 끊어버려요. 취직을 하려면 120-130만원짜리가 왜 없겠어요? 충분히 있지. 근데 그거 몇 푼 받아서 네 식구에 애들 대학 보내면서 살 수 있겠어요? 안되죠? 최소한 350은 받아야돼요.

> 대기업에서 오라고 하면 가요. 그러면 내가 수급자생활 떨쳐버리고 간다고! 근데 당연히 나를 안 받지요... 나도 지금까지 나라에 세금 무지하게 냈어요. 난 애들한테, 내가 냈던 세금 다시 환불해오는 거라고 해요. (중장년층 5)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실직의 원인을 외적귀인하고,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예외적인 사례(중장년층 10)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10(55세)은 청년층과 다른 중장년층의 구직 한계를 인정하고, 불만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점을 토로했다. 예외사례의 원인은 연구참여자의 고령화나 이전 직장의 경험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강사도 현실적인 걸 찾는 게 현명하다고 해요"(연구참여자 10)"라는 언급처럼 교육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 취직이 안 되는 것도 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비하면 사회가 실업자를 많이 배려한다고 봐요. 개인이 노력을 안 하거나 소양이 부족해서 못하지. 실업자들도 일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젊은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런 애들은 비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비전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잖아요. 자기가 노력만 하면 굶지는 않아요. 만족할 만큼의 소득은 분명히 없죠. 현장에 들어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30만원 밖에 안돼요. 옛날에 받았던 봉급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하지만 거기에 맞춰야죠. 불만만 하면 되나요? 적은 돈이라도 받고 현실적으로 내 생활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죠. (중장년층 10)

4) 사회적 관계망

① 가족

중장년층 실직자들에게 가족은 양가적인 존재로 나타났다. 먼저, 실직의 가장 큰 어려움이 "남자로서 가장 노릇을 못하는 것"이라고 반복되어 나타나듯이 가족은 실직 가장에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 가족의 생계부양자는 아버지여야 한다는 구조기능적 역할분담이 중장년층 실직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가족은 실직 가장에게 현 상태를 버티게 하고, 구직의 동기를 유발하는 지지적 존재이기도 하다. 중장년층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유일한 힘"(중장년층 1)이며, 가족으로 인해 "희망의 끈을 놓치않는다"(중장년층 4)고 반복했다. 이들은 가족을 "감옥인 동시에 힘이 되는 존재"로 표현하면서 가족이 지닌 양가적 특성을 드러냈다.

> 정신적으로 힘들죠. 한 가정의 가장인데,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아이들 눈치를 보게 되고... "나 혼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했죠. 근데 나만 바라보는 자식하고 아내를 보면, 그 눈을 보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일이 있으면 나가고... 아이들을 보고 "내가 폐인이 되지 말아야지, 사회실패자가 되지 말아야지"하며 마음으로 되새기고, 용기를 갖지요. 최고는 가족이죠. 가족 때문에 이겨낸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 엄마나 애들한테 제가 떳떳하게 직장 다니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중장년층 4)

>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가족이죠. 가족이 나를 바라보는 게 많은 힘이 되죠. 한편으로는 힘이 되기보다는 피하지 못하는 감옥 같은 것일 수 있어요. 테두리가 없으면 그만큼 자유롭지만 그만큼 썰렁하겠죠. 위안도 되고, 불편할 때도 있죠. (중장년층 10)

② 가족외체계

중장년층 연구참여자들은 실직 후 가족외체계의 사회적 관계를 회피한다. 남성의 사회적 정체성이 주로 직업세계를 통해 구축되고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직은 자아를 위협하는 결정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기 위해 중장년층 실직자들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시도하지만, 이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초래한다.

제 일에 실패한 후에는 친구나 지인이나 형제하고 두절하고 살았죠. 자존심도 있었고... 남자로서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외로움 내지는 좌절감, 낭패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구요. 남자들은 직장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접어야 되는 게 가장 힘들죠. (중장년층 9)

5) 정부 "일자리 정책"(고용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중장년층 실직자들은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국비지원 취업훈련 교육기관에서 섭외되었다. 이들은 구직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혜택을 직접 받는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에 비판적이었다. 중장년층 실직자들은 정부지원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센터 상담사분들이 가교 역할을 하죠. 하지만 기업체에서 [인터넷에] 띄운걸 보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거라, 직접 가서 면접을 보면 처우가 전혀 달라요. 급여도 안 맞고, 수습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하고... 면접과 동시에 이력서 값만 버렸다고 생각되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돼요. (중장년층 1)

또한, 중장년층 연구참여자들은 구직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들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복 운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하는 거는 그냥 껍데기뿐이지. 실질적으로 가보면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통합되지 않아서 노동부 따로, 근로공단 따로, 서울시 따로 하는데, 한군데서 단일화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국가 돈을 쓰는데 이쪽저쪽 따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중장년층 3)

2. 청년층 코호트의 경험

1) 거시경제적 위기에 대한 경험

연구에 참여한 청년층 실직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이들은 외환위기의 여파를 뚜렷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인의 가족이 그 당시 경제적인 피해를 직접 입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가계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이 외환위기의 타격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 보다는 이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거시경제적 사건을 간접 체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금 모으기 운동" 등에 대해 회고하며, 1997년 외환위기를 본인과는 분리된 별개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IMF 시기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 그런걸 알 리가 없잖아요? 부모님 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실감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힘드셨을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말씀을 크게 안하셔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못가고 경주로 싸게 갔던 기억은 있어요. "금 모으기 운동"하는 분위기라서 절약하고 어른들이 힘들다는 생각만 했지, 체감적으로는 못 느꼈습니다. (청년층 3)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직접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금융위기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미쳤다는 점을 알지만, 본인의 구직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인과론적 사고는 낮았다.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의 구직 성공 사례들을 목격하면서, 거시적 위기의 여파가 미시적 수준에서 상쇄되는 것처럼 인식했다.

[2008년 경제위기라고 해도] 체감적으로 심하게 느끼진 못했어요. 선배들 보면 보통 취업을 잘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고, 사람을 많이 뽑아요. 친구들도 다 잘 가고 하니까 어렵긴 어려워도 "대기업이 고용을 늘리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청년층 8)

2) 실직의 원인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자신과는 분리된 간접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이들은 실직의 원인도 거시경제적 위기에서 찾지 않았다. 오히려 실직의 근본적 원인은 구직자들의 "높은 눈높이", 즉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예로 들면서, 실직의 원인을 내적귀인하였다.

> 그런 거[2008년 경제위기]는 바로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사상 최대의 위기, 청년실업 몇 백만,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준비 안한 사람들 얘기죠. 솔직히 지금도 중소기업은 준비 안 해도 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눈이 높은 거예요. (청년층 4)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은 실직에 대한 외적귀인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실직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내적귀인하면서 구직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려고 시도했다.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거시경제의 영향이나 취업시장의 구조적 모순에 무지하다기 보다는 현실에 대처하는 전략적 사고로서 실직을 내적귀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세계 경제가 다 힘든데 안 힘든 데가 어디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힘들다, 힘들다" 생각하면 결국 힘들 수밖에 없고, 거기서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중요하죠. 사회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불평만 하는 것은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요. 세계 경제나 사회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런 요인만 생각하면 저한테 득이 될 것이 없죠. 개인적인 탓으로 생각을 하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나 동기를 갖게 되죠. (청년층 9)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실직을 거시경제적 위기 때문으로 귀인하지 않으며, 구직의 희망도 국가적 차원의 거시정책에 걸지 않았다. 국가의 고용지원정책에 대한 회의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지만, 구직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자신의 노력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 [국가의 고용지원정책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관심 갖진 않아요. 나라에서 얼마나 해주겠어요? 우리 구직자가 어렵긴 해도 어떻게 맞춰야죠. 제 몫이죠. 누가 어떻게 해주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대학 들어온 이상 성인이고, 자기 일인 것 같아요. (청년층 8)

3) 구직과정

①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화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묻자 "대기업"이라는 대답이 즉각적으로 돌아왔다. 대기업이 제공하는 근무여건을 통해 청년층 구직자들이 개념화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요소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구직자들은 임금, 후생복지, 사회적 평판도, 그리고 "비전"을 "괜찮은 일자리"의 주요소로 뽑았다.

> 대기업이면 다 좋고요(웃음). 일단, 연봉이 중소기업이랑 확실히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누구한테 대기업 다닌다고 얘기하면 편하죠. 또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든지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서 갈 수 있는 커리어가 충분히 되지요. 이직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랑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만 고르고 있어요... 연봉보다는 내가 여기서 정체되지 않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거나 일은 힘들더라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 계속 자기개발을 하고 제 몸값을 최대한 올려서, 결국 나중에 돈을 많이 받겠다 그거죠. (청년층 5)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이 "괜찮은 일자리"의 주요소로 뽑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의미하는 비전은 회사의 비전이 아니라 그 회사를 통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청년층 구직자들은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동일시하지 않으며, 철

저한 개인주의에 입각해 회사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함양한 후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것을 비전으로 정의했다.

> 대기업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렸지만 그만 두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회사의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로 가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느냐가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회사 입장의 비전이란 탑 파이브 진입 같은 거지만, 그건 회사 입장이구요. 제 개인으로서는 이 회사 아니고 다른 회사 가더라도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비전인거 같아요. 이직을 할 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야지요. (청년층 7)

청년층 구직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절대적 선호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체에 단기간 근무경험이 있거나 인턴경험을 했던 연구참여자들(청년층 6, 7)은 초과 근무가 빈번하고, 잔업수당이 낮으며, 급여일이 준수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의 경력 개발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청년층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체 지원을 꺼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체를 가면 일을 하러가는 게 아니고 고생하러 가는 거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나도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업무를 배울 수 있지요. 연봉은 초반에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청년층 7)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지원하는 직장을 자신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단계" 또는 "통과의례"로 표현하였다. 이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하거나 이후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대기업에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대기업에 지원하는 대신 "출퇴근시간이 딱 정해져있어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현재 지원하는 직장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며, "임시 직장"이라고 표현했다.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에게 본인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직장에서 성취하려는 목표의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직장관을 갖는 것은 "평생직장"에 대한 보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직업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인적 대처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석사 이상만 채용을 한데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닐 자기개발 시간이 확보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직장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딱 바꿨죠. 한마디로 회사를 보는 눈을 낮춘 거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고, 급여도 낮추니까 기업들이 더 많이 보여요. 급여가 좀 낮더라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직장이 좋아요. 이게 지금 20대의 트렌드일거예요. 평생직장이 없어진지 오래잖아요. 자기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해나가야 되요. 그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할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거나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회사는 기피하게 되죠. (청년층 1)

> 지역난방공사에 일단 지원은 한 상태예요. 되면 좋고, 안 돼도 특별히 나쁠 건 없어요. 저는 최종 목표가 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계속 샐러리맨으로 있는 것보다 조그맣게라도 사업을 하는 게 목표예요. 취업을 하더라도 저는 투잡(two jobs)을 하고 싶어요.... 저한테 "괜찮은 일자리"는 연봉이 높은 것보다는 연봉은 평균수준이면서, 주 5일제에 출퇴근 시간 딱 정해져 있고,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직장이 가까운 거예요. (청년층 2)

청년층 실직자들이 정의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요소로 사회적 평가를 간과할 수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우리 사회가 4년제 대학졸업자에게 기대하는 직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민감했다. 이들은 직업의 귀천이 아직 존재

하며, 체면에 대한 우려도 직장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희망하는 일자리 대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저는 사실 장사를 제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취업을 원하죠. 아직까지 장사는 천한 거고, 대학까지 나오면 당연히 넥타이 매고 화이트칼라 직장을 가야한다고 세뇌된 거죠. 대학교 나오면 붕어빵 찍듯이 당연히 대기업에 원서 쓰고 가야한다는 취업문화가 너무 싫어요. 하지만, 저도 장사하면 사람들이 날 무식하게 볼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죠. 한마디로 주변 시선이죠. 사람들이 내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가 신경쓰이더라구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장사]이 있어도 회사를 가려고요. (청년층 4)

② 구직의 딜레마

청년층 실직자들이 개념화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요소는 명확한 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을 가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모호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제일 가고 싶은 데보다는 일단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곳"(청년층 8)에 지원하며, "이곳저곳 많이 써가지고 된 곳 중에 생각해보자"(청년층 5)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막연하다보니 취업준비도 막연하게 소위 "스펙쌓기"에 소모된다. "무작정 맨날 공부만 하는"(청년층 1) 것으로 묘사된 청년층 실직자들의 하루 일과는 주로 토익이나 자격증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스터디그룹 참여, 개인 학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 문과 쪽은 전공을 살려서 깊게 전문적으로 나간다기 보다는 적당히 성적 받아놓고, 토익, 기본적인 한자,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까지 될 수 있는 거는 다하죠. 그래서 이력서를 많이 보내면 서류통과하고, 최종합격이 되면 이제 거기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청년층 4)

한편,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우 청년층 실직자들은 취업준비의 딜레마를 경험한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지금까지 준비한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투자비용이 증가함으로 오히려 포기하지 못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계속하면 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돌리자니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까운 상황"(청년층 9)에서 현실적 구직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도 있다.

> 공채의 최종까지 갔거든요? 최종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저의 가능성을 확실히 알았고, 주변에서도 "조금만 더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덫이죠. 최종까지 가면 2-3년 동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들죠. (청년층 3)

중장년층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청년층 실직자들도 자신들이 규정한 "괜찮은 일자리"가 아닌 경우, 취업 자체를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은데 이를 충족시키는 직장이 제한적이므로 청년층 실직자들은 취업을 자발적으로 지연시키며 취업 준비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이다. "섣불리 취직을 하는 것"(청년층 6) 보다는 자신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직장을 지속적으로 탐색한다.

> 사회에서 원하는 스펙을 다 갖춰서 유학도 갔다 오고 대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인데도 부럽지가 않아요. 회사에 가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해 떠있을 때 퇴근해본 적이 없고, 고3 보다 더하더라고요. 그런데 세금 떼고 뭐 떼면 초봉이 200만원 정도래요. 현재 저는 과외하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회사 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벌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를 고민할 여유가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 뭘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요. 인생은 즐기는 거잖아요? (청년층 2)

4) **사회적 관계망**

① 가족

청년층 실직자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구직에 관한 구체적

조언이나 직접적 제안을 하지는 않는다. 부모가 자녀의 취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녀가 구직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염려해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두고 정서적 지지를 하는데 중점을 둔다.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의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에 의존하는 한편 장기화 되는 실직으로 "가족에 대한 죄송스러움"(청년층 7)을 표현했다.

> 부모님한테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죠.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대놓고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알아서 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되냐고만 물으시고, 가끔 학원비 지원도 해주시죠.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죠. 가족들은 그냥 믿어주시고, "부담 갖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편하게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하시죠. (청년층 8)

② 가족외체계

청년층 실직자들은 실직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단절을 경험한다. 처지가 같은 친구들을 만나면 "다 힘든 얘기 때문에 어깨가 처지니까"(청년층 1) 회피하고, 취업한 친구들을 만나면 비교되는 것 때문에 자존감의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실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청년층 구직자들은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 아주 친한 친구 빼고는 거의 못 만나요. 직장이 없으니까 돈도 부담이 되고, 친구 만났을 때 "요즘 뭐하냐"고 물으면 입장도 난처해요. 난 아직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좋은데 간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면 패배자로 보는 눈빛이 있어요. "백수구나" 하는 시선이 싫지요. (청년층 6)

5) 정부 "일자리 정책"(고용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청년층 구직자들은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특히 대학생인턴선발제도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인턴제는 "80-90만원 밖에 안주면서 인턴들이 추구하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서 사무 보조나 시키는 게 대부분이고"(청년층 1), 이후 해당 기관에 취업된다는 보장이 없는 본질적 결함을 지닌다. 또한, 취업지원대책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졸업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청년층 2)는 지적도 있었다. 국비지원 교육프로그램 역시 강의자들이 중복된 내용을 피상적 수준에서 다룬다고 지적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 취업지원정책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데 거시적 수준에서는 취업률이 증가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청년층 연구참여자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 쉽게 얘기하면 전시 행정이죠. 실업자들은 실업이라는 악순환의 구조에서 탈출하는걸 꿈꾸잖아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해소한다고 6개월짜리 단발적인 인턴이나 희망근로를 확대해가지고, 실업상태에서 잠시 꺼내서 실업률을 낮추는데만 치중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인턴직 같은 것으로 취업률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죠... 국비지원 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는 전문성이 낮고, 해봤자 비정규직인 것뿐이에요. (청년층 9)

3. 중장년층과 청년층 코호트의 경험에 대한 통합 분석

본 장은 중장년층과 청년층 코호트로부터 도출된 주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실직경험 및 구직활동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Table 1 참조>.

중장년층과 청년층 코호트 간에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차이는 거시경제적 위기에 대한 경험이 다르다는 점이다. 중장년층 코호트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을 경험한 후 재기를 위해 노력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실직상태에 놓인다. 이들은 약 10년의 기간을 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연쇄적으로 발생한 관련 사건으로 지각한다. 또한, 거시경제적 위기가 개인의 구직이라는 미시적 수준에 즉각적인 여파를 미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 코호트는 1997년 외환위기를 부모의 보호 아래 간접적으로 체험하였으며, 나와는 분리된

〈Table 1〉 Integrational analysis of job loss and job seeking experiences comparing middle-aged and younger cohorts

	Middle-aged cohort	Younger cohort
Experiences of macroeconomic crises	Direct experiences of macroeconomic crises	Indirect experiences of macroeconomic crises
Causes of unemployment	External attribution	Internal attribution
Job seeking process	A condition of "decent work": Family support	A condition of "decent work": Individual career development
	The employment dilemma: Inevitable delay of employment by choice	
Social interactions	Ambivalence toward the family: Supportive but stressful	
	Isolation from social support systems	
Evaluation of government employment support policies	Criticism of government employment support policies	

거시체계의 역사적 사건으로 회상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현재 청년층의 구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특별한 자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시체계적 사건과 개인의 미시적 일상의 관련성에 대한 두 코호트의 인식 차이는 실직의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에서도 극명히 대비된다. 중장년층 코호트는 자신의 실직이 거시체계적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외적귀인을 한다. 이후 구직이 어려운 이유도 연령차별을 하는 사회 현실 때문이라고 본다. 실직의 원인과 구직의 어려움에 대한 외적귀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도 사회에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중장년층 코호트가 채용 관행의 구조적 개혁, 사회공동체로서 공생을 위한 고용주의 인식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지나친 외적귀인은 개인을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여 무기력을 초래하고, 취업이 구직자의 노력이 아닌 고용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전제를 받아드려야 하는 함정이 있다.

한편, 청년층 코호트는 실직의 원인이 거시경제적 위기나 구조적 고용문제에 있기 보다는 직장에 대한 구직자들의 높은 기대수준과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내적귀인을 했다. 특히 이들은 외적귀인이 구직을 위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내적 동기화를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실직에 대한 내적귀인은 구직 가능성이 개인의 노력에 좌우된다는 자아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지적 조정전략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지나친 개인책임론은 사회변혁을 지연시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중년층과 청년층 구직자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일자리”의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를 구직의 목표로 삼아 노력한다. 중장년층 코호트는 “무조건 아무 일이라도 한다”는 절박함을 나타냈지만, 사실 이들도 자신이 투자해야하는 노동력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평가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회교환이론적 선택을 하고 있다. 이들이 기대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의 최소 소비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의 임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고된 일을 해도 기대하는 수준의 보상을 획득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서 중장년층 구직자들은 결국 자신의 노동력이라는 비용을 철회한다. 이러한 불가피한 그러나 자발적인 취업 지연이 장기화되면 근로의욕의 저하, 노동기회의 감소, 가족의 빈곤화, 그리고 사회적 보장비용의 증가 등이 발생한다.

한편, 청년층 코호트는 철저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개념화한다. 단편적으로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높은 임금, 후생복지, 사회적 평판이 언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올해 4년제 대졸자 초임 평균 월 242만 2000원”, 2011)가 전국 100인 이상 7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271만6000원인데 비해 100-299인 중소기업의 평균 대졸 초임은 212만

6000원으로 월 59만원의 차이가 났다. 임금의 격차도 크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가능성을 중소기업체가 제공하는가가 핵심이다. 현 직장이 보다 나은 다음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자기개발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청년구직자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직장관을 갖는 것은 “평생직장”에 대한 보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직업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인적 대처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을 하기도 전에 이직에 도움이 되는 직장을 희망하는 것은 현재 취업 가능한 직장의 선택폭을 제한하고, 취업한 후에도 현 직장에 전념해서 성취를 이루기 힘든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궁극적인 직업안정성을 추구하다가 현 직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모순이 될 수 있다.

청년층 코호트는 자신들이 개념화한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중장년층 코호트와 마찬가지로 구직의 딜레마를 경험한다. 구직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증가하면서 직장에 대한 보상 기대도 상승된 상태에서 선뜻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한 직장으로 눈높이를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취업 회피현상에서 관찰되듯이, 청년층 코호트는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자신이 감수하는 비용을 상쇄할 보상을 제공하는 직장을 찾을 때까지 자발적으로 구직 기간을 연장한다. 하지만,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기대임금과 시장임금의 격차가 커진다는 한국노동연구원(“청년실업자 눈높이 여전히 높다”, 2009)의 보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기대임금이 줄어드는 폭보다 실제 시장임금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 기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 노동시장의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기대임금을 낮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중장년층과 청년층 구직자 모두 실직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다. 특히 남성은 직장을 통해 성인기의 정체감을 개발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경향이 높다. 구직자들은 사회적 교류에서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럽고,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지지체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다.

한편, 중장년층 및 청년층 구직자 모두에게 가족은 양가적 존재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코호트는 가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책임의식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힘을 얻는다. 청년층 코호트는 아직까지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에 죄송함을 느끼면서도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고마워한다.

끝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 실직자 모두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이들이 정부지원정책의 일차적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이 모든 구직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구직자들도 처우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정하고 구직에 요구되는 능력을 쌓는 개인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프로그램들이 단발적으로 운영되며, 전시적 성과에 치중하고, 관련 행정기관 간의 통합적 서비스가 부족하며, 보다 근본적인 고용구조의 개선을 간과하는 점 등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

Ⅴ. 맺는말

본 연구는 코호트효과를 고려하여 생애주기단계가 다른 실직자들의 실직경험 및 구직활동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 및 청년층 코호트가 어떻게 거시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며, 실직을 어떻게 귀인하고, 어떤 일자리를 목표로 구직활동을 하며,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가족외체계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고용지원정책에 대한 이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구직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을 담론화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방법을 통해 중장년층 및 청년층 실직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다음의 제한점이 지닌다. 먼저,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년층 연구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중산층 실직자들의 경험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장년층과 청년층 연구참여자의 학력에 차이가 코호트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주지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을 후속연구의 활성화, 교육적 활용, 정책적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금융위기가 야기한 즉각적 파장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이전의 외환위기가 현재 실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왔다. 과거 외환위기의 학습효과가 코호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현재 실직경험 및 구직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화하는데 본 연

구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적으로 이들의 생애 주기를 추적하여 코호트효과의 종단적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질적결과는 실직 및 구직과 관련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직의 원인귀인, 실직 스트레스,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가족자원, 구직활동, 희망 일자리 등을 요인화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후속적인 양적연구를 실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금융위기 이후 실직 및 구직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거시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이나 노동 분야 등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직이라는 현상을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거시적 접근이 간과한 실직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학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를 다루는 학문분야와의 소통을 도모하고, 실직 및 구직과 관련된 학제간 담론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직 및 구직과 관련된 한국 전통의 직업관, 가족역할규범, 이에 대한 세대간 변화를 이론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는 실직자들의 실직경험이 코호트별로 어떻게 다른지 또는 동일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서적 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연령층의 실직자가 개념화한 “괜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직자들이 자신의 구직가능성을 냉철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 전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연령층의 실직자들이 공유하는 경험이 무엇이고, 다른 연령층과 구별되는 욕구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자조집단을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는 실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결정자와 행정담당자들을 위한 실용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누적효과가 각 연령층의 실직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가 각 연령층의 실직자들이 가진 구직 희망에 부합되는지, 실직자 지원 정책들이 미시적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보강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줌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현실적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실직, 구직, 코호트, 질적연구

REFERENCES

김혜원. (2008). 한국 노동시장에서 구직 확률과 실직확률의 구조와 변동. **월간노동리뷰, 2008년 4월호**, 75-83.

삼성경제연구소. (2009).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올해 4년제 대졸자 초임 평균 월 242만2000원. (2011. 11. 20).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11. 11. 25, 자료출처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705099&ctg=1202&cloc=joongang|home|newslist1

정성미. (2009). 유사실업으로 본 체감실업률. **월간노동리뷰, 2009년 1월호**, 93-95.

조성희. (1999). 실직자 가족의 해체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실직 가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청년실업자 눈높이 여전히 높다. (2009. 9. 23). 서울신문. 자료검색일 2011. 10. 5, 자료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923004011

통계청. (2011). 2011년 10월 고용동향. 대전: 통계청.

행정인턴 2만5000명 무슨 일하고 어떤 대우 받나. (2009. 1. 12).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09. 2. 9, 자료출처 http://www.mediagaon.or.kr/jsp/search/popup/newsviewpopup.jsp?newsId=01100401.20090112114878&print=Y&highlight=청년인턴 지원

허재준. (2009). 노동시장 전망에 비추어 본 고용정책 과제. **월간노동리뷰, 2009년 1월호**, 75-83.

허재준, 김복순, 정성미. (2009).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9년 전망. **월간노동리뷰, 2009년 1월호**, 7-21.

Chang, J. Y., Jang, E. Y., Kim, B. S., Roh, Y. H., Lee, J. Y., & Han, J. H. (2004). The longitudinal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3(2)*, 121-144.

Cho, Y. H., Kim, B. C., & Kim, B. J. (2008).

Investigation into the influential factors on employment outcomes of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6(2)*, 437-462.

Chung, J. B. (1999). Comparison of jobless family with general family in home characteristic and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Denzin, N. K., & Lincoln, Y. S.(2000).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2nd ed.)*. Thousand Oak, CA.: Sage.

Guba, E., & Lincoln, Y.(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Joung, H. G. (1999). The effects of parental unemployment on children's depression and ego-identity.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Korea.

Kim, H. K. (2000). A study on the job loss experience of middle-aged 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Korea.

Kim, M. J. (2009). The influence of youth unemployment related economic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hopelessness and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 thesis, Sogang University, Korea.

Kim, Y. T. (2005).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34*, 81-104.

Lee, E. J. (2003).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ndividuals' emotion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2003(Fall/Winter),* 301-355.

Lee, E. J. (2004).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mong the unemployed.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2004(Spring/Summer),* 310-351.

Lim, C. S., & Yang, B. M. (2006). An analysis of employment selection and school to work transition(STWT)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4(3)*, 1-26.

Morse, J. M. (2000). Determining sample siz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0(3)*, 3-5.

Park, B. Y. (2008). Unemployed-relief civil movement and the unemployed's self-help organizations: The case studies of organizing the unemployed in Incheon, Changwon and Cheonju. *Social Welfare Policy, 32,* 189-217.

Ryu, J. A. (1999). *Effects of fathers' experiences of unemployment status on adolescents' views of work and future*.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orea.

Ryu, K. H. (2005). A study on wives' experience of unemployment of their husban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65-84.

Schwandt, T. A. (1997).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Shin, D. G. (2008). Work history and labor market outcome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8(4)*, 1-27.

Shin, Y. S. (2006). Current unemployment trend and younger workers' unemployment.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SWU, 13,* 65-78.

Song, H. R. (2004). The effects of recurrent job search failures on the expected level of job entry. Unpublished master thesis, Kyonggi University, Korea.

Stern, P. N.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s and processes. *Image, 12*, 20-23.

Sung, H. Y. (1999). *The effect of family stress on psychological distress in job loss paterfamilias*.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Korea.

Tak, J. K., Yoo, T. Y., Han, T. Y., Ahn, S. S., Hahn, Y. S., Shin, K. H., Yoon, H. N., Namgoong, H. R., & Jung, J. H. (2006). Differences in mental health and job-search related variables between

voluntary and involuntary unemployed individual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1),* 37-46.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New York,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Vosler, N. R., & Page-Adams, D. (1996).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workers at the time of a plant closing.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3(4)*, 25-42.

Yi, M. Y. (2000). *Factors influencing stress and wife beating of unemployed husbands: Focusing on couple communications and couple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Korea.

Yu, E. J. (2004). *A study on the high-educated people's career behavior according to the chronic youth unemploy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접 수 일 : 2011. 12. 01.
수정완료일 : 2011. 12. 29.
게재확정일 : 2011. 12. 29.